

발행인 윤혜연 발행일 2013년 7월 8일(월)
 편집위원 이부민, 신문용, 강윤신, 이주혜, 김현민
 ☎ 121-8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1-28 5층
 Tel 02) 3141-3011 Fax 02) 3141-3022
 E-mail equaline@hanmail.net
 Homepage http://www.equaline.or.kr

여·우·노·리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 Tel. 867-4456
 http://www.kurowoman.com/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 Tel. 867-0516
 http://www.gurolife.org/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 Tel. 332-7171
 http://www.workingmom.or.kr

서울시남부여성발전센터 | Tel. 802-0922
 http://nambu.seoulwomen.or.kr

서울시남부여성발전센터 위탁출범식 새로운 시작, 희망의 첫 걸음



서울여성노동자회가 일하는 여성과 함께 하기 위해 또 한 걸음 사업영역을 확장하였다. 올해 5월부터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남부여성발전센터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 남부여성발전센터는 서울시에서 건립한 여성을 위한 사회교육기관 중 가장 먼저 1979년에 개원되어 지역사회의 명실상부한 교육센터로 자리매김해 왔다. 교육, 취업, 창업, 일자리창출, 지역주민복지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는 큰 조직이다.

이에 6월 19일 오후 2시 센터 대강당에서 개관식을 개최하였다. 내빈으로 민주당 이목희 국회의원, 강태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부위원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유연식 과장, 차성수 금천구청장, 서울시의회 한명희 의원, 70 민노회 선배님들과 지역주민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다.

정현백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남부여성발전센터가 철학이 있는 가치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며 이를 위해 강사·교육생·직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 줄 것"을 당부하였다.

소장으로 부임한 유옥순 서울여노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지역사회 열린공간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일하는 여성의 생명력으로 삶의 가치를 창조하는 평등평화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축하공연으로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댄스동아리 '울랄라 시스템즈'의 열광적인 무대가 펼쳐졌으며, 개관기념 특강으로 방송인 이홍렬의 "도전과 열정-궁정의 힘"도 청중의 열띤 호응 속에 진행되었다.

<정리 : 이부민>



인터뷰

1. 남부여성발전센터를 맡은 소감은 어떤지요?

좋습니다. 서울시내에서 보기 드물게 자연환경이 좋아서 아침마다 싱그러운 나무와 풀 내음, 새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즐겁구요, 무엇보다 함께 몸 사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있어 좋습니다.



<유옥순 소장>

2. 남부여성발전센터 자랑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부임하자마자 행사를 계속 하는데 직원들이 하나도 오차없이 즐겁게 하고 있어요. 우리팀장님들의 탁월한 리더십 때문일 거라 생각해요.

이런 결집력과 단합된 힘이 취업하기 어려운 중장년여성들의 취업률을 높이는게 아닐까 싶어요. 취업성공패키지 실적이 전국 257개 기관중 손꼽히는 기관이 되도록했고 중장년(고령자)인재은행 운영도 잘 하고 있는거 같아요. 어렵다고 하는 결혼이주여성도 올해 목표량을 초과달성 할것 같구요. 결국 취약계층 정서를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예쁜 마음씨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3.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결합력 강화를 위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현재 여러가지 구상중인데요. 잔디밭에서 야간연주회 개최는 금천구청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프로그램을 몇 가지 설치하여 공연 가능한 동아리도 만들 계획입니다.

4. 앞으로의 사업 계획/포부는 무엇인지요?

남부 센터는 부녀복지관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인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훈련직종도 조리,봉제 등 전통직종이 많아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전문직 일자리로 갈수 있는 직종 개발을 하는 게 우선이고 다음은 70%까지 취업률을 높이는 것, 그리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3년 내에 5개 창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정리 : 이부민>

올림동

서울여성노동자회 본부

■ 평등의 전화 기획회의 개최



6월 12일 오후 7시, 이한본, 이선경, 윤지영 변호사, 새로 오신 임성호 노무사와 함께 평등의 전화 기획회의를 진행하였다. 3월~5월 까지의 모든 상담사례에 대한 법적 대응전략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고, 이어서 상담실과 자문위원단의 활발한 협력을 위한 개선점 및 상담실에 바라는 점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기획회의는 분기별로 1회 진행되며, 이번은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거의 모든 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사례 워크숍을 통해 실제로 상담실의 역량이 강화되고 있고, 자문위원들에게는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생생한 실제 사례를 접할 수 있게 되는 좋은 시간이 되고 있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 직장맘의 심리·정서까지 책임진다!

직장맘의 3고충(직장문제, 가족문제, 개인문제) 해소를 위해 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모성보호 상담, 분쟁해결 지원, 출산 육아기 법적지원서비스 이외에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3고충문제에 직면하여 어디에도 하소연 할 곳이 없다면 지금 당장 직장맘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 보자! 직장맘지원센터의 심리상담은 정 선, 정경심(상담심리전문가) 선생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며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 가는 심리상담'도 가능하다.

* 상담전화 : 02-335-0101

* 홈페이지 : www.workingmom.or.kr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이·취임식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4월 24일 늦은 6시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이·취임식이 진행되었다.

이제까지 수고하신 유옥순 관장님과 앞으로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를 책임질 새로운 서정연 관장님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한 내빈들과 강사, 전임 실무자들이 모여 즐거운 이·취임식이 진행되었다. 서울여성노동자회만이 가질 수 있는 소박하지만 진실된 이·취임식이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를 기대해 본다.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봄맞이 야유회

지난 4월 20일 해미읍성과 꽃지해수욕장으로 봄나들이를 다녀왔다.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까지 총 139명이 참석한 큰 행사였다. 날씨가 굿어 공동체놀이를 못할 뻔 했지만 실무자의 기지로 실내공간을 확보하여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었다. 집에서 싸온 맛있는 음식들로 더욱 흥겹고 신나는 시간이 되었다.



권팀의 사회복지 10년



2002년 10월 사회복지계에 발을 처음 내딛던 날이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아이들이 있는 보육원, 생활팀은 아니었지만 사무실에 있으면 아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수다를 떨었고, 그 당시 나의 나이는 고작 21살이라 아이들의 친언니·누나 같은 존재였다.

아이들과 지내는 것이 즐거워 만약 내가 사회복지자를 계속할 거라면 쪽 아동·청소년복지만 할 것이라 생각했었다.

그러다 2010년 2월 구로살터지역자활센터라는 곳에 입사하게 되면서 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기존에 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복지!!! 자활센터라는 곳은 복지와 경영이 함께 움직였으며, 그것에 대해 적잖이 부담이 되었다.

복지간병사업단에서 꽃단장, 두레밥상이라는 외식사업단에 이르기까지 일을 하면서 기쁜 것보다 속상한 마음이 더 많았던 것 같다. 그래도 일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외부후원(장학금)을 공모해

서 선정됐을 때이고, 두 번째는 처음 입사하고 봄나들이를 갔는데 그 당시 사업단주인들이 다 외면하고 2명밖에 안갔지만 그 다음해에는 전원이 다 참석했을 때이다. 마지막으로 두레밥상이 전보다 매출금이 상승하는 것을 보고 있는 요즘이다.

구로살터에 입사한지 이제 3년이 넘었지만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것 같다. 그러나 아직까지 나에게 센터는 어려우면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싶은 곳이다. 오늘도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한발 한발 조심스레 내딛고 있다.

권은숙 / 팀장

권은숙님은 2010년 2월 17일 구로살터지역자활센터에 복지간병사업단 팀장으로 입사하여, 현재 두레밥상사업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권팀'은 권은숙님의 삶터에서의 애칭입니다.

구로살터
지역자활센터

구로여성
인력개발센터

내가 만난 최고의 수강생들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정보화 강사 전연옥입니다.

구로살터지역자활센터의 통합교육지원사업단을 올해 1,2월동안 ITQ 자격증 대비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과정을 함께하였습니다.

매일 오전 3시간에서 4시간을 함께 수업하고 오후에는 자율학습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엔 10일간 한글자격증만 대비하는 수업이었으나 공부에 대한 열의가 높고 저 또한 함께하신 분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열심하신 모습이 자극이 되어 또 한번 또 한번 연장하다 파견근무를 시작하시는 3월초까지 함께하게 되었고 모두들 자격증을 하나 이상 취득하시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들도 있으시고 컴퓨터를 자주 접하지 못하다 보니 어려워 하셨으며 진도를 빠르게 나가지는 못했으나 함께 해내겠다는 열의는 그 어느 교실보다 뜨겁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어디에서 모두들 그때의 강추위를 녹일 만큼의 뜨거웠던 열의를 발판으로 더욱 발전하시고 함께 나누는 모습들이실 것을 믿으며 건강과 행운을 빌어봅니다.



전연옥 / 정보화강사

전연옥님은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정보화 전임강사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계시며, 남다른 패션감각으로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일터에서 날아온 소식

직장맘의 든든하고 힘 있는 파트너!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직장맘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생활하기란 너무 벅차고 힘들었고 스트레스와 힘겨움에 한숨과 눈물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남편도 나름대로 도와주려고 하지만, 한국의 직장문화가 야근이 많아 일찍 들어와서 아이랑 놀아주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아빠의 부재는 온전히 저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정말 나만 이렇게 사는 걸까? 우리 아이들을 좀 더 다른 사람들과 교류 속에서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큰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마포구에서 아이 키우기, 일명 '마이키'라는 카페에 "직장맘들 한 번 모이자!"라는 글을 올렸고 많은 엄마들이 봇물처럼 신청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모임장소를 물색하던 중 홍대 부근에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 평생 첫 만남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엄마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많은 고민과 문제를 담아두고 있음에도 어디에 하소연 할 곳이 없을뿐더러 마땅히 해결책이 없음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른 직장맘들도 이러한 현실을 각자 자신이 가지고 가야 할 숙제로 생각하고 있었습

다. 직장맘지원센터의 센터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직장맘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사업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엄마들의 반응을 청취하며, 좀 더 엄마들에게 다가가고

자 노력하는 모습은 든든한 파트너 한 분을 얻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특히 센터 내에 있는 맘카페는 엄마들끼리 오붓하게 모여 담소를 나누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고, 다양한 육아 잡지, 프로그램 관련 소개가 되어 있어서, 커뮤니티 활성화와 장소로는 최적격이었습니다. 맘카페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 더욱 좋았습니다.

앞으로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낼 때 쯤 또 한 번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나 고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직장맘지원센터가 옆에서 함께 고민하고 지원해준다면 걸어가는 길이 덜 힘들고 외로울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좀 더 든든하고 힘 있는 파트너였으면 좋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뿐만 아니라, 경력지속여성의 지원도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진 / 직장맘

오수진님은 부모님의 도움없이 6세, 3세 두 명의 개구쟁이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벅차고 힘들지만 행복한 엄마가 되기 위해 애쓰는 열혈 직장맘입니다.

서울시직장맘
지원센터

사측의 허위 4대보험 소급 상실신고에 대응하다!

첫 아이를 출산하고 키운 지 벌써 두 돌이 지나간다. 어느 날 갑자기 고용보험 상실통지서를 받았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육아휴직 취소처리를 했다고 했다. 이미 2012년 4월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였기 때문에, 나는 부정수급자가 되어 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회사의 업무과실로 알고 회사로 전화해서 말하면 다시 제대로 처리가 될 줄로 알았다. 그런데 담당 여직원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보고 퇴사처리 했는데 왜 이러세요?'란다. 육아휴직 중이었을 때 이렇게 처리하면 난 부정수급자가 된다고 했더니, '그럼 건강보험 복귀신청하고 보험료의 40%를 냈냐?'고 묻는데, 회사에서 그런 돈 내라고 전화 받은 적이 없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대표이사에게 물으니, 휴직 기간 동안 나에 대한 4대보험이 발생했고 이런 상황이면 자기도 어쩔 수 없어 상실신고를 했다고 했다.

여기저기 알아보다 서울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에 전화를 했다. 상담원은 노무사 자문을 통해 법적인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고, 사측에서 소급해서 한 상실신고가 위법하며 신고할 사항

임을 확인해 주었다. 법적 절차로 노동부에 진정할 것을 권하였고, 아울러 이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급여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확인 없이 소급 상실신고를 처리한 해당 고용센터에도 민원을 넣을 것을 고려해 보라고 하였다. 며칠 고민 끝에 노동부에 진정하고 해당 고용센터에도 민원을 제기하였다. 상담실에서도 직접 고용센터에 공문을 보내 내 민원에 힘을 실어 주었다.

회사를 상대로 법도 모르는 근로자가 혼자 대응을 한다는 게 너무 무섭고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상담원이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서 법조항까지 확인해 주며 대응방법을 알려주었다. 누구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도움까지 받으니 이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은 회사로부터 사과도 받았고, 4대보험을 육아휴직 끝나는 시점으로 다시 정정하여 처리해주는 것, 출산휴가기간에 못 받은 회사가 지급해야 할 60일분의 임금도 지급받기로 하고 진정을 진행하고 있다. 아마도 혼자서는 진행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 나와 같은 여성노동자들을 위해 계속 힘써 주기 바란다.

신○○ / 내담자

신○○님은 이미 2012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회사가 2011년으로 소급하여 다시 4대보험상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자가 될 위기에 처했으나, 서울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의 도움을 받아 노동부에 진정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여성
노동자회

• 이슈 •



도시 장터가 뜬다!

광화문 희망나눔장터를 다녀와서...



5월 26일 일요일 오후 12시 30분 지하철 광화문역. '헉, 덥다! 이런 땀병에 누가 오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광장에 줄지어 있는 천막들과 물건을 구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였다. 갑자기 마음이 급해진다. '자, 소비 본능 발동! 이제부터 싹 훑어주겠어!'

광화문 희망나눔장터는 재활용, 일자리, 문화, 나눔을 모토로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일요일,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낮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리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도시장터다. 이미 소문이 나서, 오후 1시 이후가 되면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시민들이 직접 들고 나온 의류, 신발 등을 지나면 환경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한 시민단체의 핸드메이드 면양치마(1만4천원)가 나를 붙잡았지만, 아직 지갑을 열수는 없다. 아직 농부시장과 자활기업 부스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농부가 세상을 구합니다!' 라고 적힌 문구를 보고 주위를 둘러보니,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건강한 먹을거리가 눈을 사로잡는다. '오! 아랫녘 바닷가 마을에서 서울로 상경한 명란젓까지!' 채소, 곡류, 건강식품, 떡과 김치전까지, 온 가족이 점심을 해결하고 저녁거리를 사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반환점을 돌아 나오면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을 만날 수 있다. 판매자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상품들을 자랑하느라 여념이 없다. 제법 잘 팔리고, 구경하는

시민들도 많다. 착한 기업의 판로라고 생각하니, 더욱 장터가 정겹다.

예전 광화문 광장은 지나치는 곳이지 머무는 곳은 아니었다. 그늘 한 점 없고, 휴지 한 조각 없는 깨끗한 광장. 그나마 여름이 되어야만 아이들이 분수대에서 뛰놀 수 있는 곳. 덕분에 부모들은 자동차 소음을 참으며 머물러야 하는 광장. 그런데 지금 나는 광화문 광장에서 떡꼬치를,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것도 바닥에 고추장을 떨어뜨리면서 먹고 있다. 금지된 것이 오늘날 허용된 것 같다. 이순신 장군에게 세종대왕이라는 친구가 생긴 후, 광화문 광장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한국을 보여주는 공식적이면서 의례적인, 외국인들을 위한 관광지로 거듭났다. 그런데 오늘날은 시민들이 북적대는 활기찬 광장으로 제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도 사람 구경하느라 일주일에 한번은 재미있지 않을까? 상징화를 통해 무게 잡는 광장을 만든 사람들은 이런 모습에 어떤 생각을 할까? 진지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정겨운 시민들의 장터로 만든 상상력에 박수를 보낸다.

〈사진 : 김현민 / 정리 : 신문웅〉

※ 7~8월 휴서기와 우천 시 (전날 오후 6시 기준 강수확률 80% 이상)는 개장하지 않습니다.



여우소리 편집위원들이 추천하는 가볼만한 도시장터 4곳!

[명동의 낭만 '명랑시장' : 일요일 오후 1시~6시 을지로 삼각공원] 예술, 공예, 디자인에 종사하는 창작자들의 작품이 판매되고 인디밴드와 같은 예술인들의 공연과 전시가 이어지는 일종의 예술 시장

[연희난장 : 10월까지 토요일 낮12시~오후6시 국립국악원 광장] 8개도 16개 지자체의 우수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장터. 버나돌리기, 상모돌리기 등 연희체험도 가능

[마르쉐@ : http://www.marcheat.net에서 장소와 시간 확인] 농부와 요리사가 함께 만드는 도시형 장터. 음식을 매개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이야기하고 안심하면서 사고파는 도시형 장터로, 먹을거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개인들의 만남에 즐거움이 담기는 도시 속 대안적 커뮤니티의 공간. 월단위로 일정 및 장소를 홈페이지에 공개

[한마음살림장 : 매월 둘째주 주말은 아트마켓, 매월 네째주 주말은 생활시장] 손맛 나는 수공예품과 디자인 상품의 아트마켓과 식품과 생활용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생활시장. 오전11시~오후6시 서울시민청 지하 1층 시민플라자

여우와 함께 하며

이 꼭지는 서울여노의 자문위원 및 이사가 자신의 일터에서 또는 여노와 함께 하며 느끼는 단상을 나누는 란입니다.

임신을 하면 생기는 일

- 아직도 모성권 보장은 제자리 걸음

임신·출산기 직장맘의 노동상담을 하다보면 직접적인 사직충용보다는 원격지로의 배치전환,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기간동안 최저 인사고과를 부여하여 업무복귀시 임금상 불이익을 준다.

또한 출산 전에 징계처분을 행한 후 업무복귀시부터 정직이나 감봉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여성 스스로 사직하도록 하는 편법이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대책이 쏟아지는데도 이런 행태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사회는 여전히 임신·출산여성의 노동에 부정적인 시선, 나아가 임신부로 인한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인식이 뒤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모성권 침해에 대한 반사회적 의미를 확대해갈 방법, 사업장의 인식을 변화시킬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 박주영노무사는 2008년 2월부터 평등의전화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금속노조 법률원에서 일하고 있다.



서울여성노동자회
자문위원
박주영 노무사

이 한 장의 추억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임금평균의 1/3 수준이다. 최저임금을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전체 노동자 임금의 50% 정도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에 비하면 지나치게 낮다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매년 6월말에 결정되어 그 다음 한해동안 적용된다.

2002년 6월 12일, 강남 학동에 있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앞 집회 사진이다. 홍현희 감사, 윤혜연 회장, 손영주 전 부회장의 모습이 보인다.

소개합니다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미녀4총사

임성은, 류영미, 박지연, 최윤정



(왼쪽부터 임성은, 류영미, 박지연, 최윤정)

♣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일을 해보니 어떠세요?

[임성은] 지방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실습할 때는 여유롭고 평화로웠으나 실제로 구로센터에서 근무해보니 바쁜 만큼 효율적으로 업무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류영미] 2009년도에 잠시 구로센터에 일을 했을 때 좋은 느낌을 받아서 직업상담사 공부 후 정식으로 입사하게 되었어요. 구로센터에서는 내가 업무안에서 나의 역량을 펼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박지연] 서울여성노동자회 법인이 마음에 들어서 입사하게 되었어요. 기대한 만큼 현재 만족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최윤정] 일하면서 취업설계사라는 직업이 전문직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가요?

[임성은] 청소년 및 대학교에서 1:1 취업지원을 하고 싶어요. 아이들의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류영미] 전문적인 커리어코칭강사가 되고싶어요. 취업이라는 장은 도전하고 싶은 직종인 것 같네요.

[박지연] 이곳에서 인정받고 크게 성장하고 싶어요.

[최윤정] 저는 남과 다른 나의 전문분야를 찾고 싶어요. 이력서&자기소개서를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강사가 되고 싶어서 현재 공부하고 있어요.

• 여우가 만난 사람 •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신임관장 “서정연” 그녀를 알아보자~!

Q. 안녕하세요? 서정연관장님. 우선 관장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A.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전임관장님의 새로운 도전으로 제게 이런 기회가 생겨 아직은 크게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Q. 실무자로 오래 근무하시고나서 관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A. 아직은 관장님~~이라는 호칭보다는 서실장~~이라고 불리우는게 편안한데, 점차 익숙해지겠지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어려운 시기에 관장이 되어 무엇보다 책임감에 어깨가 좀 무겁기도 하지만, 일하는 사람이 즐겁고 행복한 일터가 되어야, 찾아오는 고객에게도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구상중인데, 생각만으로도 벌써 행복해 지네요

Q. 통련할 수 있었던 비결이 궁금하네요. 혹시 스트레스를 푸는 나만의 비법이 있으신가요?

A. 처음 말단직원으로 입사했을때부터 지금까지 제 적성에 딱 맞는 일이었어요. 무엇보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의 일이 보람을 가지게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일단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수다로 지인들에게 위로를 받고, 잘 될거야~~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을 빨리해서 심정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만들죠. 잠자고 일어나면 스트레스의 80%는 없어지기도 하구요.

Q. 혹시 실무자들에게 바라는 점도 있으신지요? 그리고 선배된 입장에서 후배들에게 해주고픈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일단은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루고자하는 목표를 반드시 세우도록 부탁하고 싶습니다.

Q. 서정연에게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란?

A. 나를 성장시키는 든든한 울타리

Q. 마지막으로 최종 꿈은 무엇인가요?

A. 얼마전 돌아가신 박영숙선생님의 장례식에서 다짐한건데요 선배들에게는 일 잘하고 유쾌한 후배로, 후배들에게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선배로, 친구들에게는 둘도 없이 편안한 사람으로 사람들의 기억속에 미소를 머금게 하는 사람으로 열정을 다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정리 : 강윤신)

• 법인 상근자 수련회 후기 •

“힐링, 그리고 마음비우기”



6월의 둘째 주, 어느 때보다 이르게 찾아온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였다. 무더위와 함께, 남부센터는 위탁기념식 준비, 구로센터는 협동조합 준비, 구로센터는 새로운 지도체계 마련, 직장맘은 주요현안 발생 등 각자의 자리에서 막바지 열정을 쏟아내고 지쳐있을 때였다.

힐링과 속풀이에 대한 필요가 절정에 오른 6월 14일 금요일, ‘법인수련회’ 이름 하에 고마운 마음으로 일손을 톡하고 놓고, 이른 아침 괴산행 버스를 탔다.

소시지가 정해준 버스좌석 번호를 받고 ‘까르르 짹짹’과 함께 다같이 부를 곡의 가

사와 짹짹에 대한 질문지까지 친절히 준비한 준비팀의 배려로 서로에 대해 소소한 일상을 알아가며 여행을 시작하였다. 돌이켜보면 그런 짹 짹배열이 아니라면, 누군가는 상사 푸념을 듣고 갔을 것이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켜고 인터넷을 놓지 못하고 갔을 것이다. 모두가 원하던 힐링의 시작은 그렇게 열린 마음을 요구하고 있었다.

숙소에 도착하여 소박한 점심을 함께하고 시작된 운동과 웃음. 응원이 가득했던 ‘포크댄스’, ‘팔씨름대회’는 열린 마음을 하나로 하며 서로의 긴장한 몸을 풀어주는데 적절한 시간이었다. 비록 팔뚝왕의 자리는 남부가 아쉽게 놓쳤지만 2등과 3등이 우리 센터라는 거, “주희야, 민정아, 너무 멋졌어~”

이어진 ‘도전 골든벨’에선 아쉽게도 ‘1국 5잔’ 샴티의 밥상 문제를 놓쳐서 우승 바로 앞에서 떨어졌지만, 법인과 부설기관에 대해 짧고 굵게 이해할 수 있었다. “국장님, 법인 창립일 1987년 3월 21일 외워갔는데, 아쉬웠어요!”

본격적으로 팀을 나눠 시작한 ‘피구’, ‘줄

다리기’ 등 운동회는 땀범벅 속에서도 모두의 에너지를 한데 모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최선을 다해 팀플레이를 하는 초롱초롱한 눈빛과 끝나고 먹은 시원한 수박 한 입, 이 글을 읽고 있을 상근자 모두가 기억할 것이다.

화합의 저녁식사가 무르익고 시작된 늦은 시간 캠프파이어. 불현듯 올라다 본 하늘의 별들이 늘 그 자리에서 태어나고 빛나고 사라지듯, 우리도 그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에 서로를 안아주고 토닥이고 격려하며 “지금 그대로 잘하고 있다”는 응원을 주고받고 보니 두려운 맘으로 수련회에 참여하던 순간은 잊혀지고 기쁘게 웃고 있는 내가 보였다.

돌아오는 토요일, 좀 더 새로운 기운으로 괴산의 풍경을 몸소 느끼며 기관 동료간 즐거운 맘으로 ‘산막이 옛길’을 오르고 내려다 보니, 건강한 심신이 우선이라는 것도 느끼게 되고 힘들 때 말 걸어주고 손잡아 주던 동료들이 있어 고마웠다.

행사시작 즈음 회장님이 “단위별로 노력하는 우리들이 여성노동자회의 어제와 오늘”이다. “내일을 위해 서로 소통하는 친구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남부는 앞으로 법인의

‘오늘’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고, ‘내일’을 위한 소통의 자리 중심에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일하고 싶은 여성’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센터 직원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비울 수 있는 나’라는 존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재충전하고, 법인과 기관 실무자간 서로를 신뢰하고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길 기대해 본다. 함께 외쳤던 구호만큼 생명력을 얻고 돌아온 6월의 어느 멋진 날이었다.



김현숙 / 팀장

김현숙님은 2007년부터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근무했으며, 목소리가 아름답고 행사사회, 글쓰기, 업무처리 등 못하는 것이 없는 팔방미인입니다.



축하합니다



서울여성노동자회와 직장맘지원센터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수경 노무사가 6월 30일 오후 7시 어린이대공원에서 있었던 서울시여성주간 기념행사에서 서울시여성상을 수상했습니다. 그간 여성사회 참여 확대 및 취약계층 여성노동법률 지원활동을 꾸준히 해온 노고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동안 애쓰셨어요.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여우소리
10호를
내보내며

- 모든 일은 한꺼번에 몰려온다. 별대처럼... ... 김현민
- 인구샘 잘 부탁해요~! ... 강윤신
- 은숙샘 잘 부탁해요~! ... 이주혜
- 윤신샘! 주혜샘! 그동안 여우소리 편집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ㅠㅠ ... 신문용
- 하나 둘 쌓여가는 여우소리와 함께 나의 시간도 간다. ... 이부민

» 후원명단

강윤신 강보은 강은숙 고금숙 고종현 공유식 구본권 권은경 권은숙 김경란 김경희 김금자 김 린 김명희 김미례 김미리 김미정 김민선 김민주 김상열 김성혜 김수경 김숙자 김신연 김영옥 김영철 김용신 김용애 김장숙 김정숙 김진순 김지미 김지영 김 진 김진희 김하린 김해영 김행자 김현민 김현숙 김혜경 김혜진 김효선 남을순 노애라 노현주 노희정 문은미 문인구 민현정 박가현 박경숙 박경자 박경조 박미선 박선경 박선영 박소하 박옥영 박은국 박정화 박지애 박지영 박진영 방송희 배금미 배옥병 변경미 봉만수 서선자 서정연 서혜경 성화주 손미희 손영주 손은하 송기진 송희숙 신문용 신미연 신민정 신민희 신은순 심상연 안강숙 안정연 안정현 연정림 염창순 오성화 오세정 오정민 유미영 유선우 유시주 유옥순 윤금옥 윤선용 윤선주 윤택기 윤혜숙 윤혜연 이경영 이광복 이국희 이규진 이근호 이기모 이기홍 이명선 이미영 이박미 이봉화 이부민 이소영 이 솔 이송란 이영미 이유정 이윤경 이인순 이인재 이재숙 이정숙 이재윤 이주연 이주혜 이주환 이한빈 이호섭 임내옥 장서연 장성희 장영선 장진호 정경원 정명희 정지선 정현백 정홍금 조미수 조상희 조수진 조윤서 조은영 조지영 조지훈 조춘례 조혜원 주진혜 최경희 최선희 최성호 최승만 최은혜 최원호 최이숙 최현주 최혜순 한영희 한미순 한민영 한순복 한영구 한조혜 허목화 허세영 허창희 허지영 현세경 홍진숙 홍현희 황금희 황지영 황영진 황현숙 선백미록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여성노동자회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115-318425-13-203 예금주 서울여성노동자회